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보존 현황 및 과제

Preservation of World Records Heritage in Korea and Further Registry

김 성 수(Sung-Soo Kim)*

목 차

- | | |
|--------------------------|------------------------|
| 1. 서론 | 4. 한국의 기록유산 디지털화 과제 |
| 2.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가치와 의미 | 5. 세계기록유산 등록 희망 한국기록유산 |
| 3.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 6. 결론 |

<초 록>

이 논문은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하여 먼저 그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들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그 현황을 조사하며, 한국의 기록유산을 디지털화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추후 한국의 기록유산 중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기를 희망하는 4종의 기록물들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고찰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고찰하였다. 먼저 세계기록유산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먼저 파악하고,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직지(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에 대하여 각각 그 가치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규장각>·<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간송미술관>의 기관별로 그 보존·관리 현황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이 3기관 모두 세계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즉, 1) 그 세부적인 보안대책이 완벽하다. 2) 그 보존방법에 있어서도 향은·향습의 특별한 서고를 별도로 마련하고, 이 서고 내에서 다시 ‘오동나무 상자·서장(書櫃)’을 설치한 후, 이들 상자와 서장 속에 세계기록유산을 납입하여 보존하고 있다. 3) 방화장치와 서고조명 및 소독 등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음 등을 파악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한국의 기록유산 디지털화 과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 기록유산의 디지털작업 및 DB구축에서 ‘디지털화 표준’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화(Digitization)에 대한 총체적이고 표준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가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국가기록원>과 한국학 고기록물의 디지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진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한국학 관련 기록유산의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ization)에 대한 총체적이고 표준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됨을 파악하였다.

넷째, 제5장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추후 희망하는 한국의 기록유산’에서는 한민족의 기록유산 중에서 차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를 희망하는 4종 즉, 1)〈해인사 고려대장경 경판〉, 2)「동의보감」, 3)「삼국유사」, 4)「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기록물에 국한하여, 그 어떤 의미에서 세계적인 가치와 의의가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주제어 : 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직지, 디지털화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정보학부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four records and documentary heritage in Korea that is in the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The study analyzes their problems and corresponding solutions in digitizing those world records heritages. This study also reviews additional four documentary books in Korea that are in the wish list to add to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This study is organized as the following:

Chapter 2 examines the value and meanings of world records and documentary heritage in Korea. The registry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re examined. The currently registered records of Korea include *Hunmin-Chongum,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Seungjeongwon Ilgi)*, and *Buljo- Jikji-Simche-Yojeol (vol. II)*. These records heritage's worth and significance are carefully analyzed. For example, *Hunmin-Chongum*(「訓民正音」) is consisted of unique and systematic letters. Letters were delicately explained with examples in its original manual at the time of letter's creation, which is an unparalleled case in the world documentary history.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朝鮮王朝實錄」) are the most comprehensive historic documents that contain the longest period of time in history. Their truthfulness and reliability in describing history give credits to the annals. *The Royal Secretariat Diary* (called *Seungjeongwon-Ilgi*(「承政院日記」)) is the most voluminous primary resources in history, superior to the Annals of Choson Dynasty and Twenty Five Histories in China. *Jikji*(「直指」) is the oldest existing book published by movable metal print sets in the world. It evidences the beginning of metal printing in the world printing history and is worthy of being as world heritage. The review of the four registered records confirms that they are valuable world documentary heritage that transfers culture of mankind to next generations and should be preserved carefully and safely without deterioration or loss.

Chapter 3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ree repositories that store the four registered records in Korea. The repositories include Kyujanggak Archiv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Pusan Records and Information Center of National Records and Archives Service, and Gansong Art Museum. The quality of thei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re excellent in all of three institutions by the following aspects: 1) detailed security measures are close to perfection 2) archiving practices are very careful by using a special stack room in steady temperature and humidity and depositing it in stack or archival box made of paulownia tree and 3) fire prevention, lighting, and fumigation are thoroughly prepared.

Chapter 4 summarizes the status quo of digitization projects of records heritage in Korea. The most important issue related to digitization and database construction on Korean records heritage is likely to set up the standardization of digitization processes and facilities. It is urgently necessary to develop comprehensive standard systems for digitization. Two institutions are closely interested in these tasks: 1) the National Records and Archives Service experienced in developing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systems; and 2)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terested in digitization of Korean old documents. In collaboration of these two institutions, a new standard system will be designed for digitizing records heritage on Korean Studies.

Chapter 5 deals with additional Korean records heritage in the wish list for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cluding: 1) *Wooden Printing Blocks(經板) of Koryo-Taejangkyong(高麗大藏經) in Haein Temple(海印寺)*; 2) *Dongui-Bogam(『東醫寶鑑』)* 3) *Samguk-Yusa(『三國遺事』)* and 4) *Mugujeonggwangdaedaranigyeong(『無垢淨光大陀羅尼經』)*. Their world value and importance are examined as followings.

Wooden Printing Blocks of Koryo-Taejangkyong in Haein Temple is the worldly oldest wooden printing block of cannon of Buddhism that still exist and was created over 750 years ago. It needs a special conservation treatment to disinfect germs residing in surface and inside of wooden plates. Otherwise, it may be damaged seriously. For its effective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we hope that UNESCO and Government will schedule special care and budget and join the list of Memory of the Word Register. *Dongui-Bogam* is the most comprehensive and well-written medical book in the Korean history, summarizing all medical books in Korea and China from the Ancient Times through the early 17th century and concentrating on Korean herb medicine and prescriptions. It is proved as the best clinical guidebook in the 17th century for doctors and practitioners to easily use. The book was also published in China and Japan in the 18th century and great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clinic and medical research in Asia at that time. This is why *Dongui Bogam* is in the wish list to register to the Memory of the World.

Samguk-Yusa is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history books and treasure sources in Korea, which illustrates foundations of Korean people and covers histories and cultures of ancient Korean peninsula and nearby countries. The book contains the oldest fixed form verse, called Hyang-Ka(鄉歌), and became the origin of Korean literature. In particular, the section of Gi-ee(紀異篇) describes the historical processes of dynasty transition from the first dynasty Gochosun(古朝鮮) to Goguryeo(高句麗) and illustrates the identity of Korean people from its historical origin. This book is worthy of adding to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Mugujeonggwangdaedaranigyeong is the oldest book printed by wooden type plates, and it is estimated to print in between 706 and 751. It contains several reasons and evidence to be worthy of adding to the list of the Memory of the World. It is the greatest documentary heritage that represents the first wooden printing book that still exists in the world as well as illustrates the history of wooden printing in Korea.

Key words : records heritage, world records heritage, Hunmin-Chongum,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Jikji, digitization

1. 서론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MOW)’은, <UNESCO>가 1995년에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¹⁾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한국의 기록유산은, 2001년 현재 「훈민정음」·「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직지(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의 4종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모색하고, 한국 기록유산의 디지털화 표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며, 차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인류문화를 계승할 한국의 기록유산을 제안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4종이 지니는 그 가치와 의의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을 비롯한 한국의 수많은 기록유산에 대한 내용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시도되는 ‘디지털화’ 작업

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의 위대한 기록유산 중 추후 세계 기록유산의 등재와 관련하여 인류문화에 있어서 영원히 보존하여야할 한국의 기록유산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기록물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가치와 의의

<유네스코>가 1995년부터 실시한 ‘Memory of the World: MOW 사업’의 목적²⁾과 주요활동³⁾ 및 선정기준⁴⁾에 부합되는 기록물들을 각 국가의 해당 기록물과 관련한 개인·기관·정부가 <유네스코 각 국가위원회(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유네스코> 본부 내 PGI(일반정보사업국)’에 신청하면, 이를 2년마다 개최되는 <MOW 국제자문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러한 선정절차⁵⁾를 거쳐 결정된 기록유산들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이를 ‘세계기록유산(MOW)’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위 세계기록유산 사업에서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MOW의 선정기준’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 및 <표 2>와 같다.⁶⁾

1) ① <<http://www.unesco.or.kr/mow/>>

② <http://www.unesco.org/webworld/mdm/en/index_mdm.html>

2) ①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는 기록유산의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한 보존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중요성을 지닌 기록유산의 보존을 장려. ②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평등한 이용을 장려. ③ 세계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록유산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인식을 높임<<http://www.unesco.or.kr/mow/menu2.html>>. 3)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러한 기록유산에 세계기억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수행 등 <<http://www.unesco.or.kr/mow/menu3.html>>.

4) <<http://www.unesco.or.kr/mow/menu4.html>>

5) <<http://www.unesco.or.kr/mow/menu5.html>>

다음 <표 1>과 <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1997.10.)·「조선왕조실록」(1997.10.)·「승정원일기」(2001.9.)·「직지」(2001.9.)가 등재되었다.

이제 이들 4종의 기록물들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훈민정음」

현재 <간송미술관>에 보존되어 있는 「훈민정음」⁷⁾은 1446년(세종 28)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 원간본은 현재 국내외에서 유일한 귀중본으로 전하고 있으며, 1962년에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와 같은 「훈민정음」은, 15세기 당시부터 일반 백성들의 문맹을 타파하

<표 1> 세계기록유산 선정의 주요기준

항 목	내 용
영향력 (Influence)	기록유산이 일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는 경우. ex) 세계 역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정치, 종교 서적 등
시간 (Time)	국제적인 일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이바지한 경우. ex) 초기 영화산업의 자료 유산, 독립운동 또는 특정한 시점과 장소의 관습 등과 관련된 내용
장소 (Place)	기록유산이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locality)와 지역(region)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ex)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여러 지역의 특별히 중요한 장소와 관련되거나, 전 세계 역사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정치, 사회 종교 운동의 태동을 목격하고 있는 기록유산
사람 (People)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과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대상/주제 (Subject/ Theme)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현저하게 다룬 경우. ex)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에 있는 Radziwill Chronicle (편년사)사립
형태 및 스타일 (Form and Style)	형태와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ex) 야자수 나뭇잎 원고와 금박으로 써진 원고, 근대 미디어 등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하나의 민족 문화를 초월하는 사회적, 문화적 또는 정신적으로 두드러진 가치가 있는 경우

<표 2> 세계기록유산 선정의 2차적인 기준(등록보조기준)

항 목	내 용
원상태로의 보존 (Integrity)	특별히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
희귀성(Rarity)	독특하고 특별히 진귀한 경우

6) <<http://www.unesco.or.kr/mow/menu4.html>> 참조.

7) 1446년(세종 28)에 정인지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해설한 훈문해설서를 전권 33장 1책으로 발간하였는데, 이 책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현존본은 1940년경 경북 안동 어느 고가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국내에서 유일한 귀중본임.

기 위하여 그 당시 동아시아 각 나라들의 어느 문자와도 다른 독창적인 문자를 창제하였고, 이를 한 국가의 공용문자로 사용하게 하면서, 이들 문자에 대한 해설(解例)을 도서로 출판함으로써, 그 문자 체계 또한 독창적이며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인정받게 한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역사적인 일이다.⁸⁾ 현재까지 <유네스코>가 세계적으로 문명퇴치에 공헌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세종대왕상' 시상제도는 바로 이러한 '훈민정음'의 세계문화사적인 의의를 잘 대변하여 준다고 할 것이다.

2.2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의 건국시조인 태조 때(1392)부터 제25대 철종까지(1863)인 472년(1392-1863) 동안에 걸친 조선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며, 총 1,893권 888책으로 편집되어 있는 방대한 수량의 역사서이다. 게다가 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왕실과 국민생활의 모든 주제 분야의 역사적 사실을 총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단위의

역사기록물로서는 가장 총체적이고 장기적으로 기술한 역사서로서,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귀중한 보물이다. 게다가 「조선왕조실록」은 그 역사기술에 있어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⁹⁾

「조선왕조실록」은 정족산본(本)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산엽본 21책을 포함해서 총 2,077책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 10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2.3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¹⁰⁾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매일의 국정(國政)기록이 일기(日記)의 형식으로 300년 동안 기록되면서, 당시의 역사는 물론 정치·경제·국방·사회·외교·문화 등에 조선시대 전반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조선시대의 '1차 사료(史料)'이다.

위와 같은 「승정원일기」는 이미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그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실록보다 오히려 가치가 더욱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음은 물론, 그 원본이 1부밖에 없는 귀중한 자

8) <http://www.unesco.or.kr/mow/menu7_1.html> 참조.

9) 「조선왕조실록」 20세기 초까지 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전하여 내려왔다. ①정족산 사고의 실록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 ②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1985년에 <규장각>에서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로 이관·보존·관리. ③오대산 사고의 실록은 일본으로 반출,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어 현재 27책만 남아 있음. ④적상산 사고의 실록은 구황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가져가 현재 <국가문헌고>에 소장되고 있음.

10) 「승정원일기」는 1623년(인조1) 3월부터 1894년(고종31: 갑오경장) 6월까지 272년간 <승정원>에서 처리한 국정 기록을 기록한 「승정원일기」 3,045책과, 갑오경장 이후의 「承宣院日記」 4책, 「宮內府日記」 5책, 「秘書監日記」 41책, 「秘書院日記」 115책, 「奎章閣日記」 33책으로 구성되어있다. 「승정원일기」의 가치는 조선왕조 최대의 기밀기록인 동시에 사료적 가치에 있어서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비변사등록」과 같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료로서, '세계 최대의 1차사료(史料)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료이기 때문에, 1999년에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승정원일기」는, 중국의 「25사」와 「조선왕조실록」을 능가하는, '세계최대(世界最大)의 1차 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4 「직지(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금속활자의 발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적 혁명을 일으킨 공로로 '지난 천년 동안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술적 혁명'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직지」는 1377년에 간행됨으로써 '현존하는 세계최고(世界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도서'일 뿐만 아니라 '세계 인쇄미디어의 시발(始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직지」는 현대와 미래의 각종 멀티미디어 이미지를 포함한 미디어 및 전자데이터의 원조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는 가히 세계적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직지」의 세계적 인지도는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1455)보다 낮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도서'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직지」의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는 <청주시>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비로소 2001년 9월에 드디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지정되었다.¹¹⁾

이상 「훈민정음」·「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직지」 4종은, <표 1>과 <표 2>에서 제시하는 '세계기록유산의 선정기준'에 모두 당당하게 통과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민족의 세계적인 소중한 기록유산이다. 또한 이들 4종의 세계기록유산은 그야말로 인류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존하여야 할 세계적인 기록유산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고조선 이래 조선시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실로 5,000년에 이르기 때문에, 차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여야 할 별도의 기록유산은 허다하다 하겠다.¹²⁾

3.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제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을 각 기관별에 의한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나는 내용을 각 기관별로 논술하면 다음의 각 절과 같다.

3.1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왕조실록: 鼎足山 史庫本」¹³⁾ 및 「승정원일기」를 소장·보존하고 있다. <표 3>

11) 특히 금번 '유네스코/직지상'의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제 「직지」는 정보전달과 미디어혁명의 원조(元祖)라는 세계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12) 이에 대해서는, 본고 제5장에서 별도로 논술됨.

13) 정족산 사건의 실록 이전·보존의 상황은, (1445)전주사고 → <(1592-1597: 임진왜란) →내장산→해주→강화→묘향산→강화> → (1606)마니산 → (1660)정족산 → (1910)조선총독부 → (1930)경성제대 → (1946)서울대학교 → (1984)서울대학교 <규장각>의 순서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규장각>의 건물 특성은 건물의 천정과 벽은 모두 두꺼운 철근콘크리트로 특수하게 건축되어 만약의 사태(예컨대, 戰時)에도 대비한 지상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규장각>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보존대책은 극히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그 세부적인 보완대책이 완벽하고, 특히 보존환경 면에서 서고 내부

에 조습판재(調濕板材)를 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동나무 서장 속에 「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각 도서를 보존하고 있으며, 방화 장치와 서고조명 및 소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현재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바탕종이는, 다른 사고(司庫)의 실록과는 달리, 특이하게 한지(楮紙)에 밀랍을 가공한 이른바 '밀랍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¹⁴⁾

<표 3>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¹⁵⁾

	<규장각>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	<간송미술관>
보존자료	1)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전주)본; 한지(楮紙): 밀랍(蜜蠟)가공 숙지(熟紙). 2) 「승정원일기」: 한지: 생지(生紙)	「조선왕조실록」태백산본; 한지(韓紙) 생지.	「훈민정음」 해례본; 한지(韓紙) 생지.
건물 특성	전시(戰時)대비 지상 건물 *천정두께: 1M 철근콘크리트 *벽체: 박물관 2중벽(습기방지) *벽두께: 60cm 콘크리트	전시대비 보존서고 *지하4층, *별도 지정서고	지상건물
보안대책	3중 금고 문, 3중 시건장치, 통제구역 설정, 출입통제 CCTV설치	2중문, 2중 시건장치, 통제구역설정, 출입통제 CCTV설치	대책완비
보존환경	*중앙공기조절장치(항온, 항습) *서고(벽면, 천정, 바닥): 조습판재 및 불투습판재 시공	*중앙공기조절장치(항온, 항습; 20°C, 50%) *서고 조습판재 미(未)시공	항온, 항습
보존방법	*국보, 보물 별도서고 1) 「실록」: 2층 오동나무 서장(書櫥): 각층 10단, 각 단에 2책 또는 3책씩 수평 보존 2) 「일기」: 2층 오동나무 서장, 각 층 4단: 각 단에 3책 3책씩 수평 보존.	*「실록」 별도서고 *5단 목재 서가, *각 단 오동나무상자 배치, *각 상자(오동나무: 방충, 항온, 항습) 속 3-4책씩 수평입함(入函)	*오동나무 상자에 입함(入函)
방화장치	가스자동소화설비	가스자동소화설비	완비
서고 조명	자외선 퇴색방지등(燈)	서고 출입시 국한 형광등 사용	상시(常時)차단 원칙
소독	년1회 훈증(薰蒸)소독	매2년마다, 폐청일에 그늘에서 책장을 넘기며 거풍(擧風) 작업: 실록 편 찬 당시: 3년마다 포쇄(曝書)	정기적 포쇄(曝書)
특징	*실록: 밀랍(蜜蠟)본, <밀랍본 보존대책 위원회> 구성: 기초조사 완료	국가기록물 보존의 원칙 준수	박물관 유물보존 원칙 준수

14) 정족산 사고본 실록 각 권에 대한 상세한 조사보고서는, 1967년에 이루어진 「朝鮮王朝實錄(江華本) 調査表」가 가장 오래 것이다. 이 조사표에 '염랍(染蠟) 부식(腐植) 상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송기중 외,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1),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4-5. 참고).

아마도 이것은 정족산 사고본에 국한하여 그 실록을 보다 오래 보존시키기 위한 특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밀랍으로 그 종이를 가공·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직면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손상 역시 과거의 사람들이 기록물을 보다 오래 보존시키기 위해 강구했던 방법이 오히려 후대에 와서 손상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¹⁵⁾’라고 볼 수 있다. 즉, 한지의 특성상 밀랍으로 가공한 숙지(熟紙)는 오히려 생지(生紙)보다 보존수명이 짧은 결과를 초래한다.

〈규장각〉에서는 위와 같은 『조선왕조실록』의 원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1996년부터 그 보존처리의 방법을 고심하여, 2003년에 “조선왕조실록 보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보존처리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므로, 그 대책이 머지않아 제시되리라 본다.¹⁷⁾

요컨대, 기록유산은 원상태 즉 그 원본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2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¹⁸⁾〉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¹⁹⁾」은, 종래 태백산 사고(1603-6년)본으로, 한일합방 당시 조선총독부 종친부에서 관리하다가, 1929년 경성제대 도서관(현 서울대 〈규장각〉)을 거쳐, 1985년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로 옮겨져 현재까지 보존·관리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정보센터는, 조선 건국의 시조인 태조에서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년월일 순서에 따라 기록된 역사서인 「태조실록」에서 「철종실록」까지 848책 1706권을 보존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기록정보센터에서의 「조선왕조실록」 보존현황은 첫째, 이 센터의 보존서고 지하 4층에 별도 지정서고에 이중으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둘째, 보존서고의 보존환경은 습도50%·온도2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영구적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실록」의 보존방법은 예로부터 향온·향습 및 방충 등의 효과가 높은 오동나무상자 291개(1개당 3-4책)에 각 책들을 넣

15) 이 표는 〈규장각〉의 권재철 사서,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 조세구 사무관, 〈간송미술관〉 백인산 연구원 등의 도움을 받고, 이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종합·작성된 것임. 「직지」의 경우, 근래에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이승철 연구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직지」를 직접 약 4시간가량 열람·조사한 바 있으나, 수장고(守藏庫)의 현황은 직접 파악할 없었기 때문에, 「직지」에 대해서는 본 표 및 그 논술에서 제외함.

16) 박지선, “조선왕조실록의 손상 현황과 보존 대책,”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1)」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134.

17) 송기중 외,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1)」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5-7. 참고.

18) 〈부산기록정보센터〉는 1984년 11월 1일 개소(開所), 토지 37,238평에 건물 5,200평. 보존서고는 지하1층에서 4층까지 20개 서고(2,151평),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보존환경을 완벽하게 갖추, 당시 동양 최대의 과학적 선진외국의 보존기법을 적용하여 건축됨. 문서류 150여만권, 도면류 80여만매, 마이크로필름 7만여롤 등 관리.

19) 국보 제151-2호.

어서 관리하고 있다. 넷째, 소독 방법의 일환으로 매2년마다 하늘이 쾌청한 날 시원한 그늘에서 책장을 넘기는 거풍작업(포쇄(曝書))을 실시하고 있다.²⁰⁾

요컨대,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의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보존대책은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그 세부적인 보안대책이 완벽하고, 그 보존방법에 있어서 오동나무 상자 속에 「실록」의 각 도서를 납입하여 보존하고 있으며,²¹⁾ 방화 장치와 서고조명 및 소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3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²²⁾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이다. ‘한글’의 사용 용례를 기술하고 있는 이 「훈민정음」은 현재 유일본(唯一本)으로서도 큰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송미술관>의 「훈민정음」 기록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현황은, 그 보존 건물에서부터 소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목에서 ‘극히 양호하다’는 전언(傳言)이 있었다. 이는 <간송미술관>의 문화재 보존대책은 <국가기록원>이나 <규장각> 등의 공공기관의 보존현황보다 더욱 철저를 기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간송미술관>은 사립(私立) 미술관으로서 많은 국보급 및 보물급 문화재를 수장하고 있는 전문미술관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보안대책·보존환경·보존방법 및 방화장치·소독 등의 측면에서 더욱 철저를 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송미술관>의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보존대책은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그 세부적인 보안대책이 완벽하고, 그 보존방법에 있어서도 오동나무 상자 속에 「훈민정음」 단행본을 납입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방화 장치와 서고조명 및 소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한국의 기록유산 디지털화 과제

우리나라 기록유산의 전산화 및 디지털화 작업은 1990년대부터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민족문화추진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중앙연구원>²³⁾·<국립중앙도서관>·<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학진흥원>·<고려대장경연구소>를 비롯하여 각 대학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소장 고서(古書)·고문서 및 목판 등에 관한 한국학 기록유산의 디지털작업 및 데이터베이스

20) 실록의 편찬 당시에도 층해와 습기에 의한 오손을 막기 위하여 대개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포쇄(바람에 쏘이고 햇볕에 말림)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1) 단 보존환경 면에서, 서고 내부의 천정·벽면·바닥에 조습판재의 시공이 있다면 더욱 철저하고도 완벽한 시설이 되리라 봄.

22) <간송미술관>은 전형필(全鑾弼)선생이 1938년에 설립하였다. 대지가 4,000평으로 도시 속에 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주위가 한적하고 조용하다. 미술관의 중심건물인 <보화각>에는 전형필 선생이 평생 동안 수집한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데, 소장 유물이 대다수 국보급들이다. 우리나라 제일의 고서화 소장처로서, 국보(國寶) 9점, 보물(寶物) 12점을 소장하고 있음. <http://snowblue.sookmyung.ac.kr/museology_dig/gallery/gansong.htm>

23) 구(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스 구축에 돌입한 바 있다.²⁴⁾ 그리하여 이들 기관이 주도하는 기록유산 디지털화 작업의 현황들이, 「제2차(2004) 유네스코 아·태지역 기록유산 보호 훈련 워크숍」에서 우리나라 기록유산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에 의하여 “한국 기록유산 현황과 보존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발표된 바 있다.²⁵⁾

위 10여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기록유산 디지털화 사업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며, 놀라울 만큼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기록유산의 디지털작업 및 DB구축에서의 여러 문제점²⁶⁾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디지털화 표준’의 문제 즉, “(디지털화) 표준화 방식이 없으므로, 각 기관별로 각각 다른 형태의 텍스트 가공 및 검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한국학 관련 10여개 이상의 기관들에서 각 기관별로 각각 다른 형태의 텍스트 가공 및 검색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결과 각 기관간의 호환성은 물론 그 정보의 공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록물의 디지털보존(Digital Preservation)과 그 활용을 위한 디지털화(Digitization)에 대한 총체적이고 표준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하는 각각의 이미지·텍스트 화일이나 메타데이터(metadata) 가이드에 대한 표준안(standard)도 마련함으로써, 구축된 DB의 개개 자료에 대한 표준화를 통하여 정보의 호환성 및 공유를 위한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컨대, 우리나라의 기록유산을 디지털화 하는데 있어서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방안(solution)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가기록원>이 <문화재청>과 함께 나서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의 국가기록물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한 경험과 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국학 고(古)기록물의 디지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진 <문화재청>과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한 <국가기록원>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한국학 관련 우리나라 기록유산들을 제어(control)할 수

24)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고려대장경연구소>는 1996년 1월에 해인사 소장 고려재조대장경 81,258장(162,516面: 53,000,000餘 漢字)의 전문(全文) 내용을 전산화하는데 성공하고, 검색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DB구축을 완료하여 2000년 연말에 CD-ROM을 출시하였다. 1992년의 전산화 모색기부터 시작하여 무려 9년간에 걸친 노력의 소산이었다(①종립, “팔만대장경 전산화 추진경과와 이후 계획,” 「팔만대장경 전산입력 기념세미나」 (주최: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삼성문화재단. 후원: 삼성전자. 1996년 1월 19일, 9-20. ②고려대장경연구소, 「고려대장경 (CD-ROM 사용자 안내서)」,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0), 3-5.).

25) 이춘근(문화재청 기획관리관), “한국기록유산 현황과 보존방안,” 「제2차 유네스코 아·태지역 기록유산 보호 훈련 워크숍」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4), 75-110.

26) 위의 논문, 81쪽, 참조.

“첫째, DB구축에는 기초자료 준비 등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둘째, 1차자료의 해독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DB설계 등 그 구축과 관련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화) 표준화 방식이 없으므로, 각 기관별로 각각 다른 형태의 텍스트 가공 및 검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문제이다.”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ization)에 대한 총체적이고 표준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기록유산을 비롯한 국가기록물의 디지털화는 미래의 한국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5. 세계기록유산 등록 희망 한국 기록유산

본 장에서는, 필자의 나름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기록유산 중에서 차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를 희망하는 한국의 기록유산, 즉 1)〈해인사 고려대장경 경판〉, 2)「동의보감」, 3)「삼국유사」, 4)「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4종에 국한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5.1 해인사 고려대장경 경판

만약 '세계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위

대한 기록유산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필자는 서슴없이 '해인사 고려대장경 경판'²⁷⁾이라고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세계의 대장경 중에서 세계최고(世界最古)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내용의 완벽함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는 기록유산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인사 장경판전(藏經板殿)〉은 1995년에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²⁸⁾ 그러나 공교롭게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사업²⁹⁾은 바로 이 당시인 1995년에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작 고려제조대장경의 경판(經板)에 대해서는 그 세부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겨를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³⁰⁾ 올해 6월 27일에 서울에서 〈팔만대장경 동판간행 범국민추진위원회〉³¹⁾가 결성되었다.³²⁾ 이 위원회의 결성목적은, 현재 대장경 경판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민족유산인 팔만대장경의 재질이 목판(목재)이기 때문에 미래 언젠가는 훼손·소멸될 경우 그 당시의 민족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판(銅版)으로 팔만대장경

27) 〈해인사 장경판전〉에는 81,258장의 대장경판이 보존되고 있으며, 그 총 글자 수는 무려 5천2백여만자로 추정. 이 대장경판은 고려 현종(1009-1031, 재위) 때 새긴 초조대장경은 몽고의 침입에 불타버려, 다시 새겼다하여 '재조대장경'이라 일컬음. 개태사의 승통인 수기(守其)가 북송판과 거란본 및 우리의 초조대장경을 대조하여 오류를 바로잡은 대장경임. 〈http://www.unesco.or.kr/whc/heritage5_5.html〉.

28) 〈http://www.unesco.or.kr/whc/heritage5_5.html〉

29)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유네스코에서 1995년부터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Memory of the World〉사업을 시작하여 기록유산의 보호에 앞장섬.

30) 〈유네스코/한국위원회〉측에 문의 한 결과,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이 팔만대장경의 경판에 대해 한국위원회 차원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인사 장경판전〉이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원형을 잘 보존하자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보고 있음.

31) 위원장: 이수성 전총리, 부위원장: 해인사 원택 스님. 이 위원회는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및 기독교의 강원룡 목사 등도 참여하여, 국내에서 각 종교를 초월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기록문화유산으로서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성격을 띤.

32) 〈<http://news.buddhapia.com/news/BNC000/BNC0005474.html>〉

〈<http://www.buddhatv.com/about/default.asp?mode=read&bno=6&no=33215&page=13>〉

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대 장경의 '동판 재현 사업'의 의미는 실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장경의 목판 즉, 그 원판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대장경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할 세계적 의무도 동시에 유념하여야 한다.

한편, 2004년에 <충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와 <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 대덕연구소>가 합동으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산재하는 조선시대 고서 및 목판류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면서, 고서와 목판 및 수장고의 유해미생물을 채취·분리하여 형태학적·생리학적 특성을 연구한 바 있다.³³⁾

이 연구의 결과, *Aspergillus niger*, *Aspergillus oryzae*, *Aspergillus versicolor*, *Bacillus subtilis*, *Mucor mucedo*, *Neurospora sitophila*, *Penicillium rugulosum*, *Penicillium viridicatum*, *Pseudomonas putidav*, *Rhizopus delemat*, *Staphylococcus aureus*, *Streptomyces sp.*, *Thamnidium elegans*, *Trichoderma viridae* 등 14종의 미생물이 분리되었다.³⁴⁾ 특히, 분리된 미생물 중에서 인체에 유해하고 고서와 목판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들에 관한 논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 14종의 미생물 중 ①*Aspergillus oryzae*, ②*Pseudomonas putidav*, ③*Trichoderma viridae*라는 3종의 미생물은 고서와 목판의 섬

유질 재질을 강하게 분해함으로써 그 재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⁵⁾

둘째, 분리된 미생물의 독성조사의 실험에서는, ①*Aspergillus oryzae*, ②*Pseudomonas putidav*, ③*Staphylococcus aureus*라는 3종의 미생물은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Amylase를 분비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이러한 미생물들은 지류 및 목판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전체적으로 목판의 생물학적 열화(劣化)를 유발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고서와 목판 등의 문화재로부터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³⁶⁾

셋째, 분리된 유해미생물의 섬유소분해효소(Cellulase)의 활성 측정에서는, ①*Trichoderma viridae*, ②*Pseudomonas putidav*, ③*Aspergillus oryzae*라는 3종의 미생물은 기존의 일반미생물보다 작업실 및 수장고내에서 분리된 미생물의 효소활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리된 가해미생물이 목재나 고서와 같은 섬유조직을 가지고 있는 재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⁷⁾

넷째, 유해미생물 오염에 따른 지류의 강도 변화 실험에서는, 미생물에 오염된 시료는 전반적으로 지류의 강도가 떨어짐을 볼 수 있었다. 이 중 특히 ①*Aspergillus oryzae*, ②*Pseu-*

33) 김기현 외, “수집되는 고서 및 목판류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 조사,” 『記錄管理保存』 제10호 (2005), 63-102.

34) 이같이 고서 및 목판에서 분리한 미생물들이 기록물 및 문화재를 취급하고 관리하는 근무자에게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효모·식물·암세포를 이용하여 독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분리한 미생물에서 독성이 검출되었음.

35) 김기현 외, “수집되는 고서 및 목판류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 조사,” 65쪽.

36) 위의 논문, 75-78.

37) 위의 논문, 78-79.

domonas putidav, ③Tricoderma viridae 등의 3균주가 다른 가해미생물보다 지류강도가 심하게 떨어져 지류의 열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다섯째, 유해미생물 발생에 따른 지류의 착색상태 조사의 결과, ①Aspergillus niger, ②Penicillium rugulosum, ③Tricoderma viridae 라는 3종의 미생물은 고서 및 목판 재질의 표면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침투하여 번식함으로써 재질을 분해시키고, 분비물에 의한 색상의 변화 이외에도 종이 섬유 내에 균체가 침투·번식하여 그 훼손을 유발 할 것으로 생각된다.³⁹⁾

이 연구결과에 입각하면, 고서와 목판류에 기생하는 14종의 미생물 중 상당수의 미생물들은 인체에 매우 유해할 뿐만 아니라, 고서와 목판 재질의 표면에서 발생하여 그 내부까지 침투·번식함으로써 목판의 재질을 분해·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 미생물들은 고서와 목판 등의 문화재로부터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고려대장경의 경판에 대한 보존문제를 생각하여 보면,

첫째, 대장경판의 표면 및 판전 내부에 기생하는 미생물에 대한 특별한 조사·연구가 시급하게 요청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장경판은 13세기의 유물이기 때문에, 위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미생물의 종류보다도 훨씬 더 종수도 많고 독성도 강한 미생물들이 서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조사·연구의 결과에 입각하여, 세계적인 문화재인 고려대장경판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철저한 크리닝(Cleaning: '먼지털기'를 비롯한 오염물질 제거 등)작업 및 소독(특히 인체와 목판에 무해(無害)한 천연소독 약제의 방제에 의한 미생물의 제거 등)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둘째, 현존하는 세계유일의 13세기 목판대장경인 고려대장경 경판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을 위하여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함께 주도 면밀하면서도 각별한 보존·관리 대책을 반드시 시급하게 수립·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대규모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고려대장경의 경판에 대하여 별도의 '세계기록유산'의 등록이 요구된다.⁴⁰⁾

요컨대, 고려대장경은 동아시아에서 10세기부터 시작된 한역대장경의 조조 사업 중 현존하는 세계유일의 13세기 목판대장경으로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존하여야 할 우리 민족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고려대장경 경판은 반드시 '세계기록유산'의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38) 위의 논문, 79-80.

39) 위의 논문, 80-81.

40) <해인사 장경판전>이 199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1997년부터 <문화재청>으로부터 장경각 및 대장경판에 대한 보수를 위한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매년 배당되고 있음. 그러나 81,258장이나 되는 경판 및 판전 건물에 대한 대규모의 크리닝 및 소독 작업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과 과학적이고도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고려대장경 경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별도로 지정된다면, 이러한 대규모 정부예산의 확보 및 세계기록유산 관련 프로그램에서의 특별예산의 배당 등이 보다 용이할 것이며, 대장경판의 치밀한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도 한층 더 증대되리라 봄.

5.2 「동의보감」

「동의보감」⁴¹⁾은 한국 역대 최고의 의학자이며 의사였던 허준(許浚)이 실용성을 중시하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당시 의학의 모든 지식을 정리하여, 1596년부터 1610년까지 16년에 걸쳐 완성한 25권 25책의 한국 최대의 의학서이다.⁴²⁾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의보감」에는 중국의 후한남북조시대(後漢南北朝時代)로부터 수·당·송·원·명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83종에 달하는 중요한 역대 방서(方書) 83종이 인용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방서로는 세종 때의 「의방유취」와 「향약집성방」 및 선조 때 양예수 등이 편저한 「의림촬요」 등이 인용되었다. 그리하여 「동의보감」에서는 각 병의 증세를 기록하고 그 치료방법을 논술하는 데 있어서 중국 고대에서부터 17세기 초까지 한국의 의학서에 이르기까지 총 86종을 망라하여 각각의 출전을 밝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하였고, 때에 따라서는 민간의 치료방법(俗方)이나 허준 자신의 경험적 처방을 적기도 하였다.⁴³⁾ 그 중에서도 「동의보감」에서는 우리의 강산에

서 채취할 수 있는 향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이용과 보급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향약 중 637개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여 쉽게 이용토록 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임상의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선의학의 크게 부흥시켰다는 점에서 그 특별한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동의보감」은 조선 한방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18세기부터 일본과 중국의 청(淸)나라에서도 간행될 만큼 높이 평가되었으며,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학의 치료와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⁴⁴⁾

위와 같은 「동의보감」에 대하여, 근래에 행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신청하려는 움직임이 한 차례 있었다고 한다.⁴⁵⁾

요컨대, 「동의보감」이야말로 한국 17세기 초 기까지의 전통의학의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학서이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귀중한 인류의 기록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1) 허준은 중국 의학을 북의(北醫)와 남의(南醫)로 나누고, 조선 의학을 '동의(東醫)'라 하였다. 이는 조선에서도 독자적으로 의학을 연구·발전시켜 왔으며, 조선 의학이 중국과 대등한 전통과 수준을 지니고 있음을 주체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조선 의학은 하나의 독립된 의학이라는 의미에서 그 서명(書名)을 '동의보감'이라 함.

42) 그 저술을 완료한지 3년 후인 1613년 12월에 내의원(內醫院)에서 완간하였고, 그 이듬해 4월에 오대산과 태백산 사고 등에 내사된다. 이 책은 내경(內景), 외경(外景, 잡병(雜病), 탕액(湯液), 침구(鍼灸)의 5대 강목(綱目)으로 나눈 후, 각 강(各綱)의 류(類)에 따라 항(項)을 예기(例記)하였으며, 각 항의 류를 다시 목(目)으로 나누고, 각 항목의 다음에는 그 항에 해당하는 병론(病論)과 방론(方論)을 빠짐없이 채록하였음.

43) 이 책의 내용은 각 병증의 항목을 주로 증상을 중심으로 하여 열거하며, 병항(病項)에 따르는 처방을 출전과 함께 일일이 제시하고 있음. 「동의보감」은 1,212종의 약에 대한 자료와 4,497종의 처방을 수록하고 있음. 특히, 탕액편(湯液篇) 3권 3책은 향약명(鄉藥名)이 한글로 637개가 등재되어 있어 17세기 당시 국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도 평가되고 있음.

44) 허준 著·동의보감 국역위원회 譯, 「對譯 동의보감」(서울: 법인문화사, 1999). 이 책 중, 「동의보감」의 序, 集例, 역대 의방(醫方), 대역 서문 등, 참고.

45) 이 내용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선경 차장이 이-메일을 통하여 필자에게 알려준 사실을 기록한 것임.

5.3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당시 국존(國尊)으로 책봉되었던 승려 일연(一然: 1206-1289)이 삼국(고구려·백제·신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의 시초인 고조선에서부터 동부여에 이르기까지 「삼국사기」에서 기록되지 않은 삼국 이전 한국 고대 국가⁴⁶⁾들의 건국과 관련한 신화의 역사화를 표방하였고,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정형시가인 향가 14수를 수록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원류를 파악하게 하는 등, 한국 최고(最高)의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고대 역사·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도서 이다.⁴⁷⁾

특히 「삼국유사」의 「기이편」에서는 우리의 역사서로 보이는 「위서(魏書)」·「고기(古記)」를 비롯한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는 사료들을 발굴하여 그 전거(典據)로 채록·제시함으로써 우리민족의 국가기원과 관련한 신화를 역사화 하였으며, 그 신이(神異)스러운 건국신화에서 비롯된 '고조선 → 위만조선 → 마한 → 고구려'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유구한 전통에 입각한 정체성(正體性)을 확립하였다는데 그 위대성

이 있다.⁴⁸⁾ 그리하여 「삼국유사」는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파악하게 하고, 단군을 국조(國祖)로 하는 배달민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⁴⁹⁾

위와 같은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역사·지리·문학·종교·민속·사상·미술·고고학 등 총체적인 문화유산의 원천적인 보고(寶庫)로 평가되고 있다.⁵⁰⁾ 바로 이와 같은 「삼국유사」는 '세계기록유산의 선정기준'⁵¹⁾에 가장 부합되는 기록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4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996년에 경주 불국사 석가탑의 사리공(舍利孔)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하 '무구정광경'으로 약칭함)은 '706-751년 사이에 간행된 현존하는 세계최고(世界最古)의 목판인쇄도서'이다.

이 「무구정광경」은 704년(天后末年: 長安4年)에 중국에서 미타산(彌陀山)에 의하여 번역되고,⁵²⁾ 이 번역본이 신라에 수입되어 706년에는 경주 황복사 삼층석탑에 납탑공양(納

46) 고조선(古朝鮮)·왕검조선(王儉朝鮮), 위만조선(魏(衛)滿朝鮮), 마한(馬韓), 이부(二府), 칠십이국(七十二國), 낙랑국(樂浪國), 북대방(北帶方), 남대방(南帶方), 말갈(靺鞨)과 발해(渤海), 이서국(伊西國), 오가야(五伽倻), 북부여(北夫餘), 동부여(東夫餘).

47) 「삼국유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일본 〈天理大學 圖書館〉의 귀중본 등으로 소장·보존되고 있음.

48) 김성수, "고구려와 고조선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삼국유사」 기이편의 서지적 분석," 「書誌學研究(ISSN 1225-5246)」 제29집(2004. 12), 207-240. 참고.

49) 만약 이 기록이 없었던들 우리는, 삼국시대 이전의 우리 역사를 중국의 사료(史料)인 「삼국지(三國志)」의 동이전(東夷傳)에 겨우 의존하는 초라함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기」에 누락되었거나 또는 고의로 삭제하여 버린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수록됨으로써 한국고대사의 가장 귀중한 자료임.

50) 김상현, "삼국유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1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89-290.

51) 본고 제2장의 '세계기록유산 선정기준' 참조.

52) 이 「무구정광경」의 번역자는 서역(西域) 도화라국(覲貨邏國) 출신의 미타산(彌陀山)이며, 그는 700년 5월 5일부터 704년 1월 5일까지 동도(東都: 洛陽) 삼양궁(三陽宮)에서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7권(卷)의 번역을

塔供養)되었으며, 751년 불국사의 건축 당시 석가탑에 목판인쇄도서 1권이 납입되었던 것이다.⁵³⁾

위와 같은 「무구정광경」에 대하여, 중국 측에서는 '이 경전이 701년에 번역되고, 702년에 낙양(洛陽)에서 각인(刻印)된 중국의 인쇄도서'⁵⁴⁾라는 등의 여러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무구정광경」이 한국의 위대한 기록 유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첫째, 목판인쇄된 「무구정광경」의 서법(書法: 筆法)⁵⁵⁾은 5세기말 6세기초 중국 북위(北魏)시대의 서법과 유사한 점이 많고, 한편 한국의 〈냉수리 신라비(503 추정, 국보 제264호)〉 및 〈울진 봉평비(鳳坪新羅碑: 524, 국보 제242호)〉 등 6세기의 신라서법과 흡사(恰似)하여, 이 서법은 곧 8세기 당시의 한반도에서 전통적으로 전수되어 내려오는 신라서법(新羅書法)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무구정광경」의 서법은 '8세기 당시 당(唐)의 사경서법(寫經書法)⁵⁶⁾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무구정광경」의 간행지는 바로 신라지역(경주)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⁵⁷⁾

둘째, 「무구정광경」을 인쇄한 종이는 닥종이(楮紙)를 도침(搗砧) 가공한 숙지(熟紙: 두께 0.082mm, 密度 0.82g/cm²)인 한지(韓紙)이다.⁵⁸⁾ 게다가 1995년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 발견된 다라니서사(書寫) 지류뭉치에서 「무구정광경」을 인쇄한 종지와 흡사(恰似)한 '탑인(塔印)을 날인(捺印)한 도침된 닥종이(楮紙: 두께 0.077mm, 密度 0.60g/cm²)'가 발굴되었다. 게다가 〈호암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755년에 사성(寫成)된 '백지묵서(白紙墨書) 「화엄경」'의 종이 또한 그 표면에 광택이 있고, 종이의 두께 0.05mm 및 그 밀도가 0.64g/cm²이기 때문에 도침에 의한 가공법을 적용한 신라산 닥종이임을 파악할 수 있다.⁵⁹⁾ 따라서, 이들 3종류의 종이는 모두 한국 고유의 도침가공법을 적용한 신라산 닥종이(楮紙)이기 때문에, 「무구정광경」을 인쇄한 간행지는 바로 신라지역임을 증명할 수 있다.⁶⁰⁾

셋째, 「무구정광경」에는 당 측천무후(則天

마친(繕寫功畢) 년도인 704년 당해(當該) 년도에 바로 이 「무구정광경」을 번역하였던 것이다(①智昇(730), "開元釋教錄," "大正新脩大藏經" 제55권 565쪽의 '大乘入楞伽經'조 및 566쪽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조 참조. ②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研究」(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0), 100-104. 참조).

53)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研究」(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0), 104-119. 참조

54) 中國印刷博物館 編, 「中國古代印刷史圖冊」(香港: 香港城市大學出版社, 1998), 7-8.

55) 「무구정광경」의 서법은 그 결구(結構)가 부정형(不定形)하고, 장법(章法)이 불균정(不均整)한 특징이 있다(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연구」, 135-138.).

56) 반면에, 8세기 당시 중국 당(唐)시대의 서법은 그 자체(字體)가 평정(平正)하고 매우 깨끗하면서도 세련된 풍격(風格)의 사경서법(寫經書法)이 유행하였다. 당시대의 사경서체는 왕희지(王羲之)의 서법을 숭상하는 분위기에서 그 풍격이 완성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경체(寫經體)'라고 지칭된다.

57)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연구」, 122-196. 참조.

58) 반면에, 중국에서는 과거부터 종이를 가공하여 숙지(熟紙)를 만들 때에는 아교(阿膠)·백토(白土)·밀랍(蜜蠟)을 가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행하여 왔다(潘吉星, 「中國造紙技術史稿」(北京: 文物出版社, 1979), 184-186.

59) 박지선, "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 지류유물 보존처리,"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출 보고서」,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21.

60)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연구」, 197-217. 참조.

武后)가 공포(公布)하여 690-704년에 사용된 무주제자(武周制字) 4종⁶¹⁾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무구정광경」이 705년 이후 신라에서 간행된 것임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 중종이 집권(705)하면서 무주제자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 705년 이후에는 무주제자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런데 「무구정광경」에 무주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책이 705년 이후에 중국의 국외지역인 신라에서 유통된 「무구정광경」의 사경(寫經)을 저본(底本: 바탕책)으로 하여 판각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⁶²⁾ 따라서 「무구정광경」에 무주제자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것이 705년 이후 신라에서 간행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⁶³⁾

넷째, 704년 이후 중국에서 전래된 「무구정광경」은 706년에 경주 황복사 삼층석탑의 사리함에 안장(安藏)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사리함의 뚜껑 안쪽(蓋部 內面)의 명문(銘文)과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경」 양자의 서법 특히 둥근 필의(筆意)의 운필법(運筆法)이 서로 아주 흡사함이 지적되었다.⁶⁴⁾ 필자는 이 사리함⁶⁵⁾의 명문 중에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무구정광대다라니

경)'의 부분과 「무구정광경」 말미의 권미제(卷尾題)의 서명을 사진 촬영하여, 이들을 각각 스캔(scan)하고, 포토샵(Adobe Photoshop)으로 같은 크기의 비율로 조정하여 각각의 동일자(同一字)들을 서로 중첩·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각 글자의 운필(運筆)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동일(同一)한 인물(人物)의 필사습관(筆寫習慣)이 아니고는 나타날 수 없는 동일양식(同一樣式)에 의한 동일결구(同一結構)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황복사 사리함의 명문과 「무구정광경」 권미제의 서사자(書寫者)는 동일인물 임에 틀림없음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곧 「무구정광경」 목판 간행을 위한 저본(底本: 板下本: 바탕책)의 서사(書寫)년도는 바로 706년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는 '706-751년'으로 확정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논증일 것이다.⁶⁶⁾

이상의 네 가지의 증거에 의하여 「무구정광경」은 한국의 위대한 기록유산임과 동시에 현존하는 세계최고(世界最古)의 목판인쇄도서이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 경판>·「동의보감」·「삼국유사」·「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각각 논술했으므로, 이

61) 地(4), 諱(1), 授(4), 初(1)에 해당하는 무주제자.

62) 게다가 755년 사성 '신라 백지목서 「화엄경」'에는 '天(천)·月(월)·人(인)·國(국)·正(정)'에 해당하는 무주제자를 수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1995년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지류 문치' 속에서 발견된 「무구정광경」 내재(內在) 다라니 속에서도 '地(지)'자에 해당하는 무주제자 등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신라지역에서, 전래된 사경(寫經) 불경(佛經)에 사성(寫成)된 한자(漢字)를 가능하면 원전(元典) 그대로 정확하게 쓰려는 신라인의 의도에서 기인(起因)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63)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연구」, 217-232. 참고.

64) 천혜봉, 「한국 서지학」(서울: 민음사, 1997), 192-195.

65) <국립박물관> 소장.

66)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연구」, 246-268. 참고

들 한국의 기록유산들이 차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할 당위성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위 4종의 기록유산들은 세계기록유산의 선정기준들을 넘어서는 한국의 위대한 기록유산들임을 파악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기록유산들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에서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 이러한 기록유산을 소장·보존하고 있는 해당 각 기관이 이들 기록유산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의지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 후, 이 기록유산들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문화재청(정부)>의 의지가 다음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기록유산의 선정절차에 입각하면, “①기록유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정부 및 비정부 기구를 포함한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이 할 수 있으나, 관련 지역 또는 국가 위원회가 존재한다면 그곳을 통해서 도움을 받음”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②유네스코본부 내 PGI(일반정보사업국)에서 신청을 받아 검토한다”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⁷⁾ 따라서 이들 기록유산을 소장·보존하고 있는 해당 기관, 즉 <해인사(해인사 고려대장경판)>·<보건복지부(「동의보감」)>·<서울대학교 규장각, 법어사, 고려대학교 도서관, 개인 소장자(「삼국유사」)>·<불국사·국립중앙박물관(「무구정광경」)> 등의 당해 기관이 각각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유네스코/본부/PGI>에 이들 기록유산들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론

이상의 본론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먼저 세계기록유산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직지」에 대하여 각각 그 가치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4종의 세계기록유산은 그야말로 인류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존하여야 할 세계적인 기록유산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규장각>·<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간송미술관>의 기관별로 그 보존·관리 현황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이 3기관 모두 세계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즉, 1)그 세부적인 보안대책이 완벽하다. 2)그 보존방법에 있어서도 향온·항습을 유지하는 특별한 서고를 별도로 마련하고, 이 서고 내에서 다시 오동나무 ‘상자 또는 서장’을 설치한 후, 이들 상자와 서장 속에 세계기록유산을 납입하여 보존하고 있다. 3)방화장치와 서고조명 및 소독 등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음 등을 파악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한국의 기록유산 디지털화 과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 기록유산의 디지털작업 및 DB구축에서 ‘디지털화

67) <<http://www.unesco.or.kr/mow/menu5.html>>

표준'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화(Digitization)에 대한 총체적이고 표준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가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국가기록원>과 한국학 고(古)기록물의 디지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진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한국학 관련 기록유산의 디지털이제이션(Digitization)에 대한 총체적이고 표준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됨을 파악하였다.

넷째, 제5장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추후 희망하는 한국의 기록유산'에서는 한민족의 기록유산 중에서 차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를 희망하는 4종 즉, 1)〈해인사 고려대장경 경판〉, 2)「동의보감」, 3)「삼국유사」, 4)「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기록물에 국한하여, 그 어떤 의미에서 세계적인 가치와 의의가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1)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世界最古)의 목판대장경'이며, 그 제작년대가 이미 750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목판 표면과 내부에 기생하는 미생물의 퇴치 등 더욱 특별한 보존·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훼손될 우려가 많은 세계적인 기록유산임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 경판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한 에 대한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의 특별예산의 배정 및 그 특별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별도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2) 「동의보감」은 중국 고대에서부터 17세기 초까지 중국과 한국의 의학서를 망라하여 정리하고, 한국의 향약의 중요성 및 그 처방에 집중함으로써 모든 임상의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술된, 17세기 당시 최고의 임상의학 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의학서는 18세기부터 일본과 중국에서도 간행되어 동양 인민들의 치료와 의학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의학서이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삼국유사」는 한민족의 건국신화를 비롯한 고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등 총체적인 문화유산의 원천적인 보고(寶庫)로 평가되는 도서이며, 한국 최고(最古)의 정형시가인 향가를 수록하고 있음으로써 한국문학의 원류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이 책의 '기이편'에서는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로 이어지는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한민족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중요한 도서이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를 희망하였다.

4)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706년에서 751년 사이에 간행된 '현존하는 세계최고(世界最古)의 목판인쇄도서'로서의 큰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필자는 본문에서 이 도서가 한국의 위대한 기록유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무구정광경」은 '현존하는 세계최고(世界最古)의 목판인쇄도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대한 기록유산이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를 주장하였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장경연구소 「팔만대장경 전산입력 기념세미나」. 주최: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 · 삼성문화재단. 후원: 삼성전자. 1996년 1월 19일.
- 고려대장경연구소 「고려대장경 (CD-ROM 사용자 안내서)」.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0.
- 김기현 외. “수집되는 고서 및 목판류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 조사.” 「기록관리보존」 제10호(2005), 63-102.
- 김상현. “삼국유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1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89-290.
-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0.
- 김성수. “고구려와 고조선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삼국유사」 기이편의 서지적 분석.” 「書誌學研究 (ISSN 1225-5246)」 제29집 (2004. 12). 207-240.
- 박지선. “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 지류유물 보존 처리.”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출 보고서」.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 박지선. “조선왕조실록의 손상 현황과 보존 대책.”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1).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134-169.
- 潘吉星. 「中國造紙技術史稿」. 北京: 文物出版社, 1979.
- 송기중 외.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1).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 이춘근. “한국기록유산 현황과 보존방안.” 「제2차 유네스코 아·태지역 기록유산 보호 훈련 워크샵」.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4. 75-110.
- 종 립. “팔만대장경 전산화 추진경과와 이후 계획.” 「팔만대장경 전산입력 기념세미나」. 주최: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 · 삼성문화재단. 후원: 삼성전자. 1996년 1월 19일. 9-20.
- 中國印刷博物館 編. 「中國古代印刷史圖冊」. 香港: 香港城市大學出版社, 1998.
- 智昇(730). “開元釋教錄.” 「大正新脩大藏經」 第55卷. 565쪽의 ‘大乘入楞伽經’條, 566쪽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條.
-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1997.
- 청주시. “「직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경과보고.” 2001.9.27.(목) 17:00. 서울: 세종문화회관.
- 허준 저(著) · 동의보감 국역위원회 역(譯). 「대역(對譯) 동의보감」. 서울: 법민문화사, 1999.
- 팔만대장경 동판 간행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관련인터넷 뉴스. <<http://news.buddhappia.com/news/BNC000/BNC0005474.html>>
- 간송미술관. <http://snowblue.sookmyung.ac.kr/museology_dig/gallery/gansong.htm>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등. <<http://kuksa.nhcc.go.kr/front/index.jsp>>

규장각 홈페이지. <<http://kyujanggak.snu.ac.kr>>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

불교방송TV 홈페이지 등. <<http://www.buddhatv.com/about/default.asp?mode=read&bno=6&no=33215&page=13>>

불국사 홈페이지. <<http://www.bulguksa.or.kr>>

해인사 홈페이지 등. <<http://www.haeinsa.or.kr/tripitaka/main.html>>

청주고인쇄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jikjiworld.net>>

청주고인쇄박물관 홈페이지 등. <<http://www.jikjiworld.net/sitemap/sitemap1.jsp>>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 등. <http://www.unesco.org/webworld/mdm/en/index_mdm.html>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세계기록유산. <<http://www.unesco.or.kr/mow>>

<<http://www.unesco.or.kr/mow/menu3.html>>

<<http://www.unesco.or.kr/mow/menu4.html>>

<http://www.unesco.or.kr/mow/menu7_1.html>

<http://www.unesco.or.kr/whc/heritage5_5.html>

(이상 인터넷 검색: 2005년 7월 30일 현재).